

다산포럼



Seok Geon-sik, Seoul National University

총선이 끝난 지 열흘만에 대통령 지지도가 훨씬 더 떨어졌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적 패배의 충격으로 대통령은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앞으로의 3년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청춘 특특



Jo Hee-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문고 싶은 게 있다. 최근에 카톡이나 문자 말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쓰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장문의 손 편지 또는 쪽지, 하다못해 인터넷 편지라도 쓰거나 받았다면 암울한 세상에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해주고 싶다.

기고



Choi Chi-uk, Kwangju University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을 제정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신공항 관련 특별법 등과 달리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입지선정 이전 단계에 파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특별법은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해 재정확보와 이전지역 지원방안 등을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총선 이후 2주, 그리고 앞으로의 3년

이다. 들여다보면 윤석열 후보가 처음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가 훌륭한 정치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아주 적은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온건하고 합리적이어서 신망을 받는 인사들이 그의 정치적 멘토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점차 이들과 거리를 두고 고심의 길 대신 편하고 달콤한 권력의 길을 선택했다.

당과 야당의 눈높이가 너무 다르고 여야 모두 화해와 상생의 정치보다는 대립과 혐오의 정치에 익숙해졌다. 협치는 규범적인 담론이지만 현실에서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협치의 유력한 방안은 총리 국회추천제인데 협재의 정치 지형상 이는 실현은 미지수이다.

'차마'라는 핑계로 말을 전할 수 없는 세상

었다는 사람부터 이렇게까지 진한지 몰랐다 등 흥미로운 반응들 속에서 문득 씁쓸함이 느껴지는 건 죄책감 때문이었다. 평소에는 이렇게 말하지도 못할 텐데, 왜 진즉에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낮부끄럽다는 핑계로, 차마 이런 걸 쓸 그릇이 안 된다는 핑계로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제쳐두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가 봤다.

해진다. 여러 번 고쳐 쓰고, 읽어보며, 익숙해지면 금방 이뤄낼 일들을 등한시하게 된다. 어린 학생들이 문제라고 함부로 말하는 어른들 또한, 예외는 없다. 글의 논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주장만을 강요하는 글로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어른이 얼마나 많은가. 소통하지 못하는 글은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생기있던 사회를 침묵하게 만든다.

무안 통합 국제공항의 전제 조건

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반영되었다. 첫째, 무안국제공항을 대한민국 서남권의 관문공항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무안주민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광주전남 통합공항 건설을 전제로 했다.

러울 것이다. 셋째, 소음 영향 대책과 보상 방안으로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군공항의 소음 영향은 다양하고 심각해서 이전지역의 소음대책 없는 이전은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기존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파격적인 소음대책을 제안해 주민들의 입지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社說

윤-이 첫 회담, 협치로 '정치복원'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가시화됐다. 윤 대통령이 제안하고 이 대표가 화답하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양자회담을 눈앞에 두게 됐다.

생 문제다. 의정 갈등은 불등의 불이다. 25일이란 의대 교수들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고 이달 말이면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한다. 첫 회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현안이다.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신 3고(高)' 문제와 연계돼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도 논의 대상이다.

열악한 환경에 전남 떠나는 교사들 대책없나

매년 전남지역 유·초·중학교 교사들의 무더기 타 지역 유출이 반복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의 '교원 중도 퇴직자 현황'(유치원·초·중학교)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중도 퇴직(의원면직)한 전남 지역 교원은 총 289명에 달한다.

것으로 분석된다. 교사들이 전남을 떠나는 이유로 열악한 생활 인프라를 우선 꼽는다. 여수·순천·광양 등 일부 시군역을 제외하고는 관사 시설이 열악하고 주거지 인근 편의시설도 태부족하다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탓에 교사 수가 적어 담임은 물론 구, 행정, 각종 학교 행사까지 교사가 맡아야 하는 교단을 보냈고 올해 들어 지금까지 교원 69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Advertisement for '無等鼓' (No Equal Drum) featuring a drum icon and text about a performance or event.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